

[ 종합·국제 ]

현장과 시각

그날의 감격은 어디가고...



홍행기

정부 차장

2007년 11월 26일 오후 7시30분(현지 시각). 제 142회 BIE(세계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컨벤션 센터 '발레 드 몽테르'에서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국을 결정하기 위한 2차 투표가 막 시작됐다. 140개 BIE 회원국 대표단이 직접 실시한 1차 투표에서는 여수 68표, 모로코 탕헤르 59표, 폴란드 브로츠와프 13표로 누구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투표를 하러 단상으로 올라가는 회원국 대표단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한국 대표단의 얼굴 표정에 긴장이 흘렀다. 투표 시작 15분 만에 발표된 2차 투표 결과는 여수 77표, 모로코 63표.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석 여수시장, 한승수 총리 등 총회장에서 가슴을 졸이던 한국대표단은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에서 방송을 통해 투표결과를 지켜보던 국민도 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겨워했다.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하고, 전 국민이 한데 어울려 기쁨을 나눴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이다. 하지만, 그날의 기쁨과 흥분, 감격은 벌써 사라져버린 듯하다. 전남 지역민들이 여수박람회를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오히려 박람회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역시 지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람회 총 사업비로 예정된 2조3천886억 원 가운데 30%에 이르는 7천107억 원을 민간투자 유치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SOC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에 떠넘긴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점에서, 지난 2004년 12월 박람회 유치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당시의 의지가 퇴색한 것이라는 얘기가.

또 지난 9월 발표된 기본계획안에 비해 박람회장에 설치될 전시관 수가 8개 관 16개 동에서 7개 관 12개 동으로 줄어든데다, 전시관 면적도 애초 10만8천308㎡에서 9만4천494㎡로 축소됐다는 점, 박람회 관광객 유치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여수공항 확장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역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2012 세계박람회는 전남과 여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전남 동남권과 경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전세계에 한국과 여수를 알리기도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제 박람회까지는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난 2007년 11월 26일 박람회 유치 성공의 기쁨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다. /redplane@kwangju.co.kr

개성공단 상주 880명으로 감축

北, 남측 인력 절반 줄여...정부 "北 조치는 10·4 선언 위반"

북한이 '12·1 조치'와 관련, 1일 이후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이 지난 11월 30일 밤 11시 5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해온 구두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시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880명은 평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 1천500~1천700명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산업개발 개성사업소 40명, 개성공단 남측 협력 병원 관계자 2명, 건설 및 생산업체(입주기업)와 기타 기업 약 800명 등이 이날 이후 상시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 상주인원 27명과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인원 4명의 경우 현재 상주 체류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완전히 남으로 복귀한 경우에만 새로운 인력이 교체 투입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공단업체들의 경우 기존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 소지자 중 이밖에 상주 승인을 받지 못한 이들도 한차례 방북시 7일간(연장불가) 체류하는 조건으로 개성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체별로 승인된 체류인원 한도 안에서 고대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개성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은 88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북측이 상주인원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 중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향후 72시간 이내에 철수할 예정이다. 북측은 또 출입 계획변경은 본인의 질병과 위급 상황, 부모·형제·가족 사망시에만 가능하며 신분·장지 등 승인되지 않은 출납물을 비롯한 금지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즉시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김 대변인은 "상주인력 감축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상의 차질 및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통행과 물류의 제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12·1 조치 시행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12·1 조치 첫날인 이날 오

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른 채 방북 신청을 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발길을 들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인원 542명, 차량 310대가 출경한 가운데, 56명은 방북 신청을 마쳤으나 개성 상주 인력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오전 뒤늦게 '방북 불허'를 통보받았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북한 공군 제1016부대를 시찰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일시는 불명.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달 24일 평안북도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작장 시찰 보도 후 9일째이며, 군부대 시찰은 지난달 4일 제2200군부대 및 제534군부대 직속 구부대(대대급 이하 부대) 훈련장 시찰 후 26일 만이다. /연합뉴스

김정일 건강 나아졌나? 양손 높이 들어 박수 치는 사진 공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제기 이후 처음으로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장갑을 낀 양손을 머리 위에서 세운 채 박수를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건강이상설'이 나온 후 혼동한 은둔하다 공개활동 보도가 재개된 이후에도 마비설이 있는

원손은 대부분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채 이거나 아래로 축 늘어뜨린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일부 사진들에서 뒷짐을 지거나 왼팔을 어깨 높이까지 쳐들거나 아래에서 받치듯 든 왼손 손바닥을 위에서 오른손으로 치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됐으나 양손을 나란히 머리 높이까지 치켜들어 박

수를 치는 사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1일 오전 공개한 그의 북한 공군 제1016부대 시찰 사진 36장 가운데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16장. 종래와 마찬가지로 선글라스와 회색 과거차림의 김 위원장은 추운 날씨 때문인 듯 진한 갈색의 방한모와 회색 방한장갑을 끼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 힐러리, 국방 게이츠, 안보보좌관 존스 중도 온건파 '화합형 인선'

오바마 외교안보팀 발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50일을 앞둔 1일 오전 10시 40분(미 동부시간)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안보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서 오바마는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에 로버트 게이츠 현 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임스 존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을, 유엔 대사에 수전 라이스 외교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오바마는 또 법무장관에 흑인인 에릭 홀더, 국토안보보좌관에 제니 나폴리타노 에리조나주 주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오바마 정부의 첫 외교안보팀은 빌 클린턴 정권 출신 인사(힐러리)와 공화당 출신 인사(게이츠), 오바마 측근(존스, 라이스) 등이 조화를 이룬 '화

합형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바마 외교안보팀은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전쟁 승리, 테러대비책 강구, 북한 및 이란 핵 개발 저지, 중동평화 정착,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재건 등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폭탄테러가 발생, 미국 안팎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오바마 외교안보팀은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바마와 한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놓고 경쟁했던 힐러리는 상원 청문회를 통과, 권력서열 4위인 국무장관직에 공식 임명되면 여성으로서는 3번째 장관이 된다. 힐러리는 당내 경선후보에 일부 외교정책에 있어 오바마와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인의 견해와 어떻게 조율을 이룰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태국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 풀이

"공항 이동 농성 계속" 항공기 이륙도 허용

태국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시위대는 1일 3개월 넘게 농성을 벌이던 정부청사를 떠나 수완 나폴과 돈므앙 등 방콕 시내 2개 공항의 PAD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안찰리 파이리락 PAD 대변인은 "정부청사에 머무는 것은 너무 위험해 이곳 농성을 풀기로 했다"면서 "오늘까지 시위대 전원이 공항 농성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D는 사막 순다라넷과 솜차이 응사왓 전·현직 총리가 이끄는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 98일째 정부청사 단지 내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PAD 시위대에 대한 권한의 폭탄 공격 등으로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

상을 당하자 정부청사 농성을 풀기로 결정했다.

PAD는 또 수완나폼 공항 폐쇄 이후 발이 묶여 있던 88대의 항공기 이륙도 허용해 이날 오전 37대가 공항을 빠져나갔다. 호주 관타모리 항공 등 각종 항공사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떠난 여객기 등을 우타파오 공항으로 보내 승객 긴급 수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타파오 공항은 방콕에서 남쪽으로 190km 떨어져 있는 태국 해군 소속 비행장이다.

한편 수완나폼 공항이 시위대에 의해 일주일째 점거된 가운데 공항 폐쇄 이후 태국을 빠져나간 승객은 4만명에 달한다고 워낙스 코스타 관광체육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 정보당국 Mumbai 테러계획을 초에 알아"

인도 정보당국이 '인도관 9.11'로 불리는 Mumbai 테러 계획을 이미 오래 전 검거된 테러조직원의 증언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2월 검거된 '라시카르-에-토이바(Lashkar-e-Toiba)' 공작원인 파힘 아마드 안사리를 조사했던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안사리가 Let의 Mumbai

테러 계획을 털어냈었다고 전했다.

안사리는 이번 Mumbai 테러의 주요 표적이 된 두 특급호텔의 층별 구조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 Let 사령관인 모하메드 무자말에게 보고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사리는 Mumbai 테러를 위해 Let가 해상 침투로를 구축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는 것. /연합뉴스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market data including '금·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친절상담', and various market indices like '▶금리시세', '▶주식', '▶아파트', '▶토지', '▶다세대', '▶오아시스'.

Advertisement for '굿모닝365' (Good Morning 365) featuring various health products like '보양음료' (Nourishing Beverage) and '숙취해소' (Hangover Relief). Includes a list of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주)굿모닝365.